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 : 5요인 성격의 매개역할*

강정희** · 이은희***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공감능력 간에 5요인 성격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남 창원, 마산, 김해 및 진해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22개 학급 4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감능력 간에 청소년의 외향성, 원만 성, 개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자녀 의 공감관련 성격특성(외향성, 원만성, 개방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애정적 양육행동, 자율적 양육행동, 5요인 성격, 인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력

* 이 결과물은 2009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지원금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ehlee@kyungnam.ac.kr

I. 서 론

공감(empathy)은 크게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능력과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적 공감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Smith, 2006). 최근에 공감능력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적 변인들 중의 하나로서 주목을 받아왔으며(Kampfe et al., 2009), 오랫동안 대인 민감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기여하는 핵심요인으로서 간주되어 왔다(Zhou, et al., 2002),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리적으로 느껴 보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박성희, 1996)으로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Baston et al., 1987; Eisenberg et al., 1991; Hoffman, 1975) 및 도덕추론 발달(Eisenberg et al., 1991; Lopez et al., 2001)과 관련되며 공격성의 효과적인 통제요인(Bandura, 1999; Tremblay et al., 1994)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즈음처럼 나날이 사회가 삭막해지고 범죄가 더욱 잔인해지며, 특히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이때에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나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감(Cohen and Strayer, 1996)능력의 발달이야말로 사람들을 순화시키고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적 이해는 타인의 감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갈등 장면에서 이해의 폭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격의 감소를 가져온다. 즉, 공감의 대리적 정서반응을 통해서 적대행동의 고통스러운 결과에 대한 인식이 가해자나 관찰자의 공격적 경향과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김성일, 1998). 결국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우리 청소년들이 개인 간의 대화의 부재,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좌절감을 극복하도록 하여 인간다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공감능력은 후기 청소년기에 가장 높은 발달단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Hoffman, 1987), 공감능력의 발달이 사회적 이해, 정서적 능력의 증대, 동정심, 배려, 공격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규제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Feshbach, 1982), 양육자의 사랑과 공감능력의 부재가 청소년 비행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란, 2005). 현장연구를 통해서도 공감능력의 부재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예, 박지연·이은희, 2008; Mehrabian, 1997), 공감능력이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Gini, Albiero, Benelli and Altoe, 2007), 청소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의 유발과 반사회적 행동의 억제, 도덕성의 함양, 대인관계의 갈등해결 등에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 청소년의 성격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실증적 연구는 없지만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성격발달에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단편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 성격특성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여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감능력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능력발달에 부모의 태도와 양육방식에 의한 사회·정서적 경험도 큰 영향을 미친다(Strayer and Eisenberg, 1987). 즉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발달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방식을 통하여 촉진될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이나 권위주의적 지시보다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서(Murray, 1996) 이들의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결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지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감능력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정서적 풍토로서 작용할 수 있다(Garber et al., 1997). 실제로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청소년의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권유적(inductive) 훈육방식(장미선·문혁준, 2004; 허미화, 1997; Lopez et al., 2001), 인간지향적 대화양식(문연심, 2004; 신건호, 2003, 2004), 애정적 양육행동(이순자·오숙현, 2004; 장미선·문혁준, 2004), 자율적 양육행동(이순자·오숙현, 2004), 친밀도(장미선·문혁준, 2004; Fables et al., 1994) 등이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감능력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Feshbach, 1975; Hoffman and Staltzstien, 1967; Roe, 1977; 장미선·문혁준, 2004에서 재인용)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친밀도는 자녀의 공감능력과의 밀접한 관련을 밝히고 있는 것에 반하여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아버지는 주로 자녀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화양식에 의해서, 어머니는 애정표현이나 보살핌을 통해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로 돌봄 수준에 의해서 자녀의 문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이상민, 1999) 청소년의 공감능력 발달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자녀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부모 중 한쪽과 자녀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부모자녀관계를 개념화하고 이 관계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왔다. 그런데 부와 자녀 그리고 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각각의 독특한 방식이 있고 그 영향은 다를 수도 있다(신건호, 2004). 따라서 자녀관계를 개쪽을 대상으로 하여 부녀관계를 각각의 독특한 방식자녀의 공감능력에 다른 독상으로 있다(신건호많은 연식자녀 볼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의 성격과 공감능력

최근 성격연구에서 성격의 기본적 구조가 5개의 상위요인들로 통합된다는 5요인 모형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Digman, 1990; John, 1990; McCrae and Costa, 1997; McCrae and John, 1992; Ozer and Reise, 1994; Carver and Scheier, 2004/2005에서 재인용). 이 기본적 다섯 가지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다양하게 붙여졌지만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Costa와 McCrae(1987)가 붙인 원만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이다.

원만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대학생과 남녀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고(del Barrio et al., 2004; Munro et al., 2005), 원만성은 남녀청소년 모두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실성은 여자 청소년의 공감능력에만, 개방성은 남자

청소년의 공감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del Barrio et al., 2004), 5요인 성격특성이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발달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이 공감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격

인간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학습적 입장에서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성격형성을 중요시한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가정환경인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서 자녀의 성격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홍경자, 2007)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김의순, 1984; 김정규, 1976; 오성심·이종승, 1982; 이내수, 1987; 이진숙, 1989; 한중혜, 1980; 함정숙, 1981; Becker, 1964; Symonds, 1949; 유가효·박선주, 2004에서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성격형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유가효·박선주, 2004; 정은균, 2007)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성격형성에 다르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4.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성격 및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에 청소년의 성격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실증적 연구는 없지만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성격발달에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단편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 성격특성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여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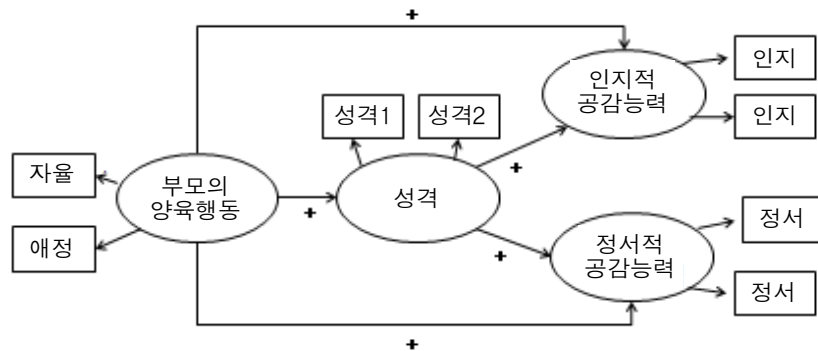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적 접근과 정서적 접근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

다. 인지적 접근에서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그들의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으로 보며(Dziobek et al., 2008), 타인에 대한 정확한 지각(DeKosky et al., 1980)과 마음이론(Premack & Woodruff, 1978)과 같은 지적 처리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인지적 접근에서는 공감을 관점취하기와 마음이론(Eslinger, 1998)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공감은 인지적 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Davis, 1994; Eslinger, 1998). 반면에, 정서적 접근에서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관찰자의 정서적 반응으로서 보고(Dziobek et al., 2008),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공감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며(Eisenberg and Miller, 1987; Mehrabian and Epstein, 1972), 이타행동(Gallese and Goldman, 1999)과 같은 정서적 처리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중요한 차이는, 인지적 공감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인지적 이해에 있다면 정서적 공감은 적어도 총체적 정서(유쾌-불유쾌) 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데에 있다(Shamay-Tsoory et al., 2004).

공감은 다요소적 구성개념으로서(Davis, 1983; Moore, 1990; Williams, 1990; Marshall et al., 2009에서 재인용),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관련된 별개의 독립적인 능력으로 보는 연구자들(예, Davis, 1996; Jolliffe and Farrington, 2006)과 통합적인 하나의 능력으로 보는 연구자들(예, Burkard and Knox, 2004; Preston and de Waal, 2002;)이 있다.

Blair(2005, 2008)는 지폐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지적 공감능력이 결여되고, 정신병질을 보이는 사람들은 정서적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서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이 독립적임을 주장하였으며, Shamay-Tsoory 등(2009)은 뇌손상방법 연구를 통하여 뇌의 ventromedial prefrontal(VM)의 손상이 인지적 공감능력의 결핍을, inferior frontal gyrus(IFG)의 손상이 정서적 공감능력의 결핍을 유발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독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능력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녀의 5요인 성격이 매개하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림 1]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성격 및 공감능력간의 가설적 모형

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청소년기에 가장 높은 발달단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감척도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여서 중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경남 창원, 마산, 김해 및 진해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22개 학급 800명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에 선정된 조사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담임교사의 양해를 얻어서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지시하고,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5요인 성격, 부모양육행동, 공감 검사(BES,)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수거된 620부 중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과, 불성실한 응답, 또는 응답 문항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46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설문 응답자 수 및 구성 비율은 남학생이 185명(40%)이고, 여학생 281명(60%)이었으며, 1학년이 139명(30%), 2학년이 158명(34%), 3학년이 169명(36%)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공감능력 척도

청소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Jolliffe와 Farrington(2006)이 개발한 BES(Basic Empathy Scale) 20문항을 연구자들이 Jolliffe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이 내용을 상담심리 전문가 2인이 검토하였고, 이중언어사용자인 영어교육학 박사 1인이 원문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역번역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였다. 한글로 번역한 공감 척도 BES가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학생 2개 학급 83명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해 본 결과 별 어려움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학생들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BES는 15세 가량의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척도이며, 인지적 요소 9개 문항과 정서적 요소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I). 인지적 요소와 관련된 문항은 ‘누군가가 우울하다고 느낄 때 나는 보통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보통 내 친구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보통 사람들이 언제 유쾌한지 알 수 있다’ 등이다. 정서적 요소와 관련된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쉽게 빠져든다’, ‘아주 무서운 영화 속의 등장인물을 볼 때 나는 무서워진다’, ‘불행에 처한 친구의 상황은 나의 감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등으로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척도별 신뢰도는 전체 신뢰도 $\alpha = .80$, 인지적 요소 $\alpha = .72$, 정서적 요소 $\alpha = .74$ 로 나타났다. 9문항으로 이루어진 BES의 하위척도인 인지적 공감요인과 11문항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공감요인의 단일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들의 부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척도가 단일차원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보다 적은 문항들로 측정가능해서(Noar, 2003), BES의 하위척도인 인지적 공감요인 9문항과 정서적 공감요인 11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 잔차가 큰 문항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지적 공감요인 5문항($\alpha = .66$)과 정서적 공감요인 5문항($\alpha = .64$)을 선정하였으며(부록 I), 이렇게 선정된 최종 측정모형들은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Basic Empathy Scale 하위척도들의 초기문항들과 최종선택문항들의 부합도

척도		문항수	χ^2	df	p	.GFI	AGFI	CFI	RMSEA
인지적 공감	초기	9	130.76	27	<.001	.886	.809	.700	.131
	최종	5	8.19	5	.146	.986	.957	.982	.053
정서적 공감	초기	11	174.32	44	<.001	.876	.814	.687	.115
	최종	5	7.84	5	.165	.986	.959	.981	.050

주. N= 225

표 2에 BES 척도가 단일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라는 1요인 모형과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이루어진 2요인 모형의 부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2> 경합모형들의 부합도 지수

경합모형	χ^2	df	p	.GFI	AGFI	CFI	RMSEA
2요인 모형	83.74	34	<.001	.932	.884	.853	.081
1요인 모형	216.74	35	<.001	.439	.742	.563	.153

주. N= 222

표2에 제시되었듯이 1요인 모형은 부합도가 매우 낮지만 2요인 모형은 부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합도 지수들은 .90 이상인 경우가 바람직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GFI>.85, AGFI>.80, RMSEA<.10인 기준까지의 준거를 사용하여 부합도를 검증한 바 있으며(예, Cole, 1987; Cuttance and Ecob, 1987; Marsh et al., 1988; Jolliffe and Farrington, 2006에서 재인용), BES 원 척도의 부합도도 GFI=.89, AGFI=.86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Jolliffe and Farrington, 2006), 본 연구의 2요인 모형의 부합도는 GFI=.93, AGFI=.88로 나타나서 수용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BES 척도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이루어진 2개 차원의 척도 모형이 단일차원의 척도보다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2) 양육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양육행동과 자율적 양육행동(이순자·오숙현, 2004)이 자녀의 공감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애정-적의,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각 차원별 10개의 문항씩 총 40개의 문항 중 애정-적의 10문항과 자율-통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애정적-적의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문항은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신다”,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싫어하는 편이다” 등이었다. 자율-통제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문항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다”,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가끔 정당하지 못한 말도 무조건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등이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런 편이다(4점)’, ‘아주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척도별 신뢰도는 애정-적대(부 $\alpha = .79$, 모 $\alpha = .73$), 자율-통제(부 $\alpha = .66$, 모 $\alpha = .60$)로 나타났다.

3) 성격 척도

청소년 자녀의 전반적인 성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에 근거한 한국형 Big-Five 성격검사(서은국·최인철, 2005)를 사용하였다. 외향성(6), 정서적 불안정성(6), 성실성(6), 원만성(6), 개방성(6) 등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외향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그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로서 “나는 모든 모임의 활력소이다”, “나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을, 정서적 불안정성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정도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로서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쉽게 짜증난다” 등의 문항을,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 원칙을 잘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려는 정도로서 “나는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 “나는 일을 대충한다” 등의 문항을, 원만성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원만한 관À 원유지하는 정도로서 “나는 사람을 편하게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공감한다” 등의 문항을,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선호하는 정도로서 “나는 어떤 일을 늘 새로운 방법으로 해 보기를 좋아한다”, “나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등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지 않다(3점)’, ‘그저 그렇다(4점)’, ‘약간 그렇다(5점)’, ‘그렇다(6점)’, ‘매우 그렇다(7점)’로 구성된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백수경과 고재홍(2007)의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외향성이 .79, 정서적 불안정성이 .78, 성실성이 .62, 원만성이 .62, 개방성이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67, 정서적 안정성이 .77, 성실성이 .67, 원만성이 .55, 개방성이 .7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구성개념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공감척도의 신뢰도와 단일차원성(Hunter and Gerbing, 1982)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Cronbach, 1951)를 사용하여 추정하는데, 내적일치도는 척도의 항목들이 단일차원성임(Nunnally, 1978)을 가정한다(Lee et al., 1996에서 재인용). 그런데 확증적 요인분석 방법이 내적일치도, 문항의 전체상관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보다 단일차원성의 검증에 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Gerbing and Anderson, 1988) LISREL 8(Jöreskog and Sörbom, 1993)을 사용하여 홀수 조사대상자들(233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BES척도 문항중 부합도를 떨어뜨리는 문항들 제거하여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짝수 조사대상자들(233명)을 대상으로 하여 단축형 BES 척도의 요인구조를 검증하였다.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으며, χ^2 , χ^2 에 대한 p값 외에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Fit-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준화 잔차의 비율 등 다른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어졌다. 그런데 χ^2 는 표집의 크기가 커지면 모형에 자료가 잘 부합될 때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가적으로 χ^2/df 지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합도 지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χ^2/df 가 2이하인 바람직하지만(Bryne, 1989) 3이하인 경우까지(Kline, 1998) 자료가 잘 부합된다고 보았으며,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RMSEA 지수는 .05이하가 바람직하지만 .08이하까지는 수용가능하다 (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에서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들(466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감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떤 성격 요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이 측정오차의 통제가 가능하며 간접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Preacher and Hayes, 2004)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로서 개별적 문항들을 사용하게 되면 공변량 구조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최대가능법의 기본가정인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Russel, Kahn, & Altmaier, 1998), 표집이 모수추정수의 5배 이상이 되어야만 최대가능법에서 안정된 추정치를 구할 수 있어서(Bentler & Chou, 1988), 부와 모의 양육행동은 애정-적의적 양육행동 측정문항들과 자율-통제적 양육행동 측정문항들을 합한 값을 이용하였다. 5요인 성격특성별(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성실성, 원만성, 개방성)과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의 각 측정치들은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합하고 그 다음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각 변수당 요인부하량이 비슷한 2개의 측정변수들을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Bruch, Berko & Haase, 1998; Russel et al, 1998). 최종적으로 부, 모의 양육행동, 5요인 하위 성격특성, 인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력 각 2개씩의 척도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III.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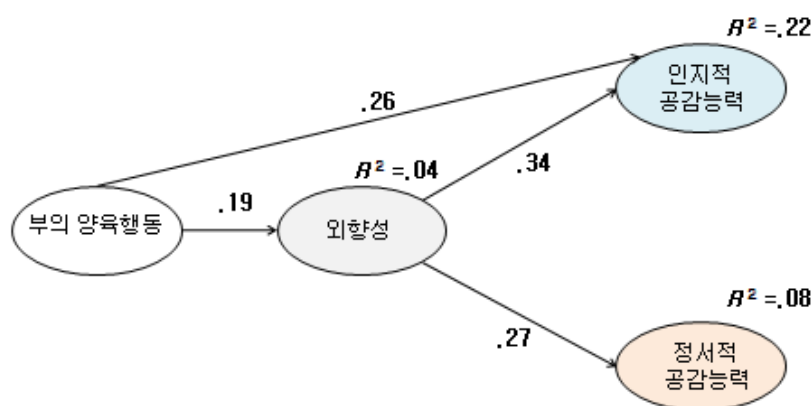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인지적, 정서적)간에 자녀의 성격(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원만성, 개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정서적, 인지적) 간에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구조모형은 부합도는 수용가능하지만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 능력간에 외향성의 매개효과가 그림 2에,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녀의 공감 능력간에 외향성의

매개효과가 그림 3에, 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 능력간에 원만성의 매개효과가 그림 4에,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 능력간에 원만성의 매개효과가 그림 5에, 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 능력간에 개방성의 매개효과가 그림 6,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 능력간에 개방성의 매개효과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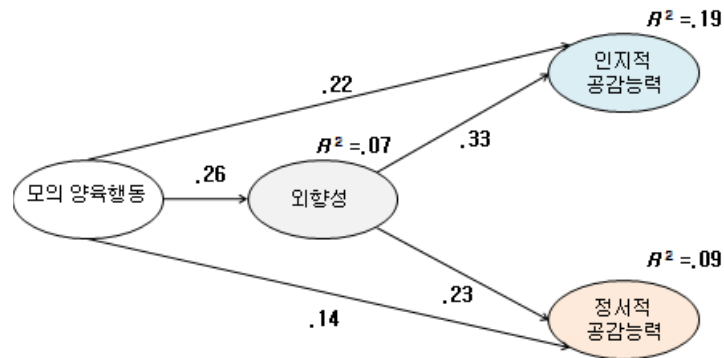
1. 부의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간의 관계에서 외향성의 매개역할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녀의 외향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 각각, ($\chi^2(15, N = 463) = 25.54, p = .04, \chi^2/df = 1.70, GFI = .986, AGFI = .967, CFI = .984, RMSEA = .039$; $\chi^2(15, N = 463) = 25.17, p = .05, \chi^2/df = 1.67, GFI = .987, AGFI = .968, CFI = .984, RMSEA = .038$)

그림 2와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26, t = 3.08, p < .01$; $\beta = .22, t = 3.15, p < .01$).



[그림 2] 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외향성 및 공감능력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3] 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외향성 및 공감능력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외향성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각각, $\beta = .19$, $t = 2.69$, $p < .01$; $\beta = .26$, $t = 3.15$, $p < .01$), 이들의 외향적 성격이 인지적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각각, $\beta = .34$, $t = 4.36$, $p < .01$; $\beta = .33$, $t = 4.13$, $p < .01$), 간접적으로도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각, $\beta = .07$, $t = 2.42$, $p < .05$; $\beta = .08$, $t = 2.73$, $p < .01$).

또한 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외향성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beta = .19$, $t = 2.69$, $p < .01$), 청소년 자녀의 외향적 성격이 정서적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beta = .27$, $t = 4.10$, $p < .01$)으로 간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ta = .05$, $t = 2.32$,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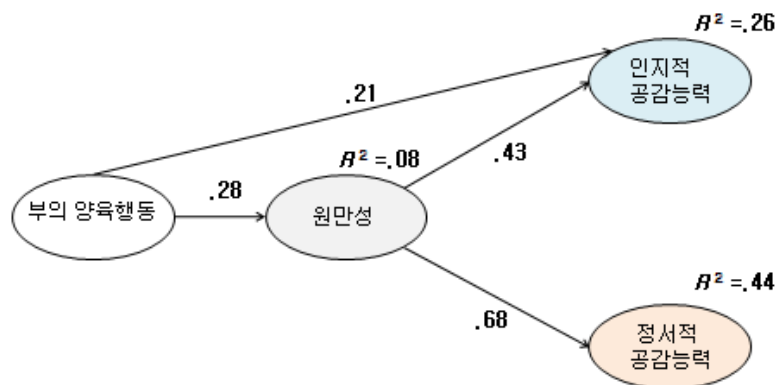
그리고 모의 애정적 자율적 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beta = .14$, $t = 2.11$, $p < .05$),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외향성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beta = .26$, $t = 3.15$, $p < .01$), 청소년 자녀의 외향적 성격이 정서적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beta = .23$, $t = 3.73$, $p < .01$)으로 간접적으로도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ta = .05$, $t = 2.58$, $p < .01$).

결국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의 외향적 성격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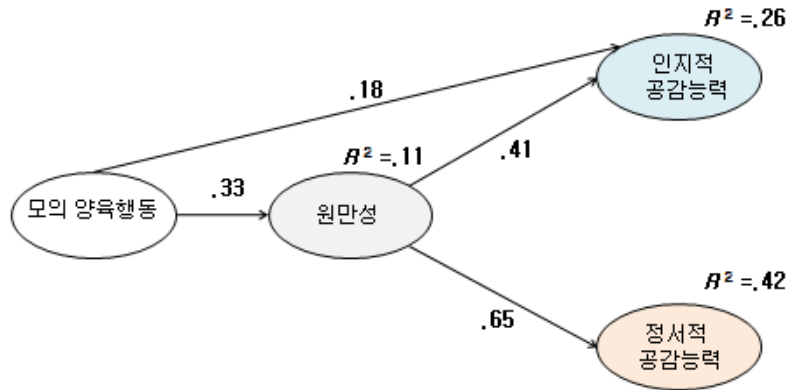
도 간접적으로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외향적 성격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는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녀의 외향적 성격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간의 관계에서 원만성의 매개역할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녀의 원만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 각각, $\chi^2(15, N = 463) = 18.20, p = .25$. $\chi^2/df = 1.21$, GFI = .990, AGFI = .977, CFI = .995, RMSEA = .021; $\chi^2(14, N = 463) = 20.13, p = .17$. $\chi^2/df = 1.44$, GFI = .989, AGFI = .974, CFI = .993, RMSEA = .027).



[그림 4] 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원만성 및 공감능력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5] 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원만성 및 공감능력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4와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21$, $t = 3.54$, $p < .01$; $\beta = .18$, $t = 2.30$, $p < .05$).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원만성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각각, $\beta = .28$, $t = 3.53$, $p < .01$; $\beta = .33$, $t = 3.63$, $p < .01$), 이들의 원만성이 인지적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각각, $\beta = .43$, $t = 4.73$, $p < .01$; $\beta = .41$, $t = 4.46$, $p < .01$), 간접적으로도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각, $\beta = .12$, $t = 2.95$, $p < .01$; $\beta = .14$, $t = 3.03$,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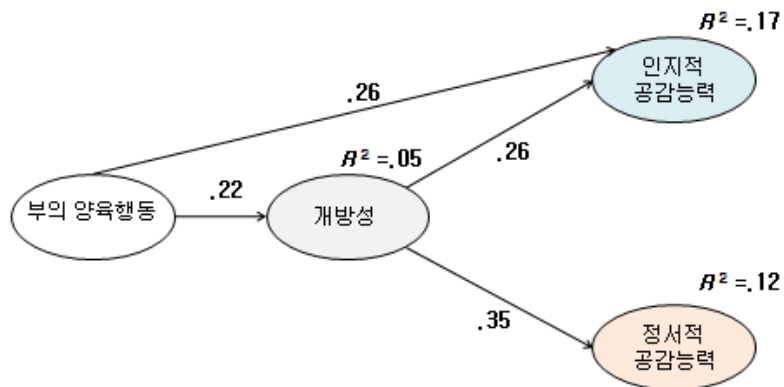
또한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원만성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각각, $\beta = .28$, $t = 3.53$, $p < .01$; $\beta = .33$, $t = 3.63$, $p < .05$), 이들의 원만성이 정서적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각각, $\beta = .68$, $t = 7.28$, $p < .01$; $\beta = .65$, $t = 7.02$, $p < .01$), 간접적으로도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각, $\beta = .19$, $t = 3.21$, $p < .01$; $\beta = .21$, $t = 3.30$, $p < .01$).

결국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의 원만성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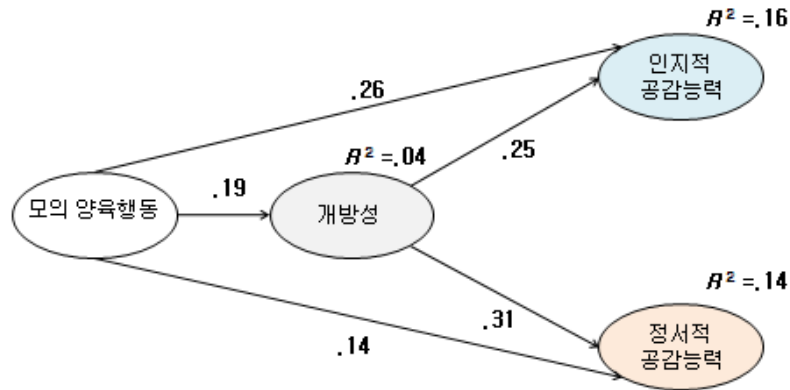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녀의 원만성 성격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간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매개역할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녀의 개방성 성격의 발달을 촉진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 각각, ($\chi^2(14, N = 463) = 24.04, p = .06, \chi^2/df = 1.74, GFI = .987, AGFI = .969, CFI = .985, RMSEA = .036$; $\chi^2(14, N = 463) = 27.01, p = .03, \chi^2/df = 1.93, GFI = .986, AGFI = .965, CFI = .982, RMSEA = .042$).



[그림 6] 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개방성 및 공감능력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7] 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개방성 및 공감능력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6와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26$, $t = 3.03$, $p < .01$; $\beta = .26$, $t = 2.80$, $p < .01$).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개방성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각각, $\beta = .22$, $t = 3.11$, $p < .01$; $\beta = .19$, $t = 2.66$, $p < .01$), 이들의 개방성이 인지적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각각, $\beta = .26$, $t = 3.07$, $p < .01$; $\beta = .25$, $t = 3.05$, $p < .01$), 간접적으로도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각, $\beta = .06$, $t = 2.32$, $p < .05$; $\beta = .05$, $t = 2.16$, $p < .05$).

또한 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개방성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beta = .22$, $t = 3.11$, $p < .01$), 개방성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beta = .35$, $t = 4.16$, $p < .01$), 간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ta = .08$, $t = 2.57$, $p < .01$).

그러나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방식과($\beta = .14$, $t = 2.14$, $p < .05$), 모의 애정적 자율적 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개방성의 발달을 정적인 영향을 주고($\beta = .19$, $t = 2.66$, $p < .01$), 이들의 개방성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beta = .31$, $t = 4.08$, $p < .01$), 간접적으로도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ta = .06$, $t = 2.36$, $p < .05$).

결국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의 개방성 성격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개방성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는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녀의 개방성 성격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과 자녀의 인지적 공감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공감능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자율성이 아동의 공감능력의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순자와 오숙현(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애정적 양육행동과 친밀감이 아동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장미선과 문혁준(2004)의 연구결과 및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운동선수의 지배성, 사회성, 사려성 성격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철수와 이충훈(2005)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 자녀의 공감발달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적, 허용적, 민주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에게 관심을 갖

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하는 애정적-자율적 양육행동(Schaefer, 1959)이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자율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감능력 간에 청소년의 외향성, 원만성, 개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감능력 간에 청소년 성격특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격특성에 따라서 청소년의 공감수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원만성은 좋은 관계의 유지에 대한 관심을 말하며, 주로 대인간 행동의 차원이며 동정에서 반감까지의 상호작용의 질을 의미한다(Costa, et al, 1991). 이 특성이 낮은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Asendorpf and Wilpers, 1988). 원만성이 대학생들의 공감(Munro et al., 2005) 및 남성과 여성의 인지적 공감과 정적이상관이 있으며(Jolliffe and Farrington, 2006), 남녀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예측변인(del Barrio et al., 20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만성이 공감을 매개로 삼아서 용서에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배정은 외, 2007), 본 연구에서도 원만성이 청소년 자녀의 공감의 선행변인임이 재확인되어서 원만성이 청소년의 공감발달을 촉진하는 성격특성임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감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중 원만성을 매개로 삼는 방식이 외향성과 개방성을 매개로 삼아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보다 그 효과가 가장 커서 청소년의 공감능력 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변인임을 시사한다.

외향성은 사회성의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으며(Waston et al, 1992), 이 특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매우 따뜻하고 정서적이며 상황이 요구할 때에는 주장적이 될 수 있다(Costa and McCrae, 1992). 따라서 부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를 따뜻하고 정서적이며 사회성이 높은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성격특성이 청소년의 공감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방성은 지성요인(Peabody and Goldberg, 1989)으로서 인생의 실존적 도전에 보다 관여하도록 하는 요인이며(Keyes et al, 2002), 이러한 특성이 높은 사람은 음악, 시, 예술, 자연 등에서 발견된 아름다움에 감수성이 강하며 자신의 느낌과 정서적 반응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그것을 중시 여긴다(Costa and McCrae, 1992). del Barrio

등(2004)의 연구에서 개방성이 남자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예측변인임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부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를 감수성이 강하고 감정분화가 잘 되어있는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성격특성이 청소년의 공감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만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는 주로 자녀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화양식에 의해서, 어머니는 애정표현이나 보살핌을 통해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로 돌봄 수준에 의해서 자녀의 문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상민, 1999)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은 유아기때 양육자와의 대상관계에서 공감적 보살핌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의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감정적, 정서적 기반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타인지향적인 공감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Dekovic and Janssens, 1992; Mallinckrodt, 1992; Denham et al., 1997; Unger et al., 1990: 박정선 · 김병석, 2001에서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들이 유아기때 주요 양육자였던 모에게 형성된 강한 애착과 대상관계가 이후의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의 초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 발달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의 발달에서 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친밀도는 자녀의 공감능력과의 밀접한 관련을 밝히고 있는 것에 반하여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Feshbach, 1975; Hoffman and Staltzstien, 1967; Roe, 1977: 장미선 · 문혁준, 2004에서 재인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기존의 연구들이 정서적 공감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정서적 공감능력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규명한 것에서 연유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외향성, 원만성, 개방성의 성격특성의 발달을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이들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공감능력 향상과 연결되는 자녀의 인성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이 차별적으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이 독립적인 능력으로 보는 연구(예, Davis, 1996; Jolliffe and Farrington, 2006) 및 뇌손상법 연구를 통하여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뇌의 각기 다른 부위가 작동함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Shamay-Tsoory 등(2009)의 연구결과를 현장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자율적 애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 자녀의 외향성, 원만성, 개방성 성격 발달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도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아버지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공감능력의 결핍이 어떠한 심리적 성장환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비행 청소년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 및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결과이므로 모든 청소년에게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 및 여러 지역의 충분한 사례, 대규모 표집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격, 부모의 양육행동,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어서 자신의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피험자가 방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위 척도들이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이므로 이 자료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Cole and Maxwell, 2003), 향후 종단적 자료를 통한 확인적 연구가 요청된다.

넷째,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간에 어떤 것이 선행요건인지를 확인하는 연구의 수행이 요청된다. 인지적 공감이 정서적 공감의 선행한다고 한 Staub(1987) 및 Marshall 등(1995)의 주장이 있지만 이를 검증한 연구가 없어서 종단적 자료나 실험연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5요인 성격 특성을 30문항의 단축형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5요인 성격특성 검사지(NEO-PI-R)를 통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간에서 매개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성일(1998).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발달.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1호, pp. 21-51.
- 김영란(2005). 교정상담에서의 공감의 중요성. *교정연구*, 제29권, pp. 159-175.
- 김철수·이충훈(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운동선수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5호, pp. 1251-1260.
- 문연심(2004). 부모-자녀 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pp. 115-143.
- 박성희(1996).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연구. *교육학연구*, 제34권 제5호, pp. 143-166.
- 박정선·김병석(2001). 친사회적 초등학생의 대상표상과 공감능력간의 관계. *교과 교육 연구*, 제5호, pp. 43-64. 단국대학교 교과교육 연구소.
- 박지언·이은희(2008). 청소년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 369-389.
- 배정은·이민규·신희천(2007). 성격특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초록집*, pp. 638-639.
- 백수경·고재홍(2007). 자기고향편향이 행복감과 인기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성격*, 제22권 제1호, 89-104.
- 서은국·최인철(2005). *빅-5 성격검사*. 미출간 논문. 서울대학교.
- 신건호(2003). 아버지의 특성과 인간지향적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42권, pp. 1-20.
- 신건호(2004). 인간지향적 부모자녀관계와 지위지향적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공감과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2호, pp. 143-159.
- 오성심·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우트*, 제11권 제1호, pp. 1-15.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유가효·박선주(2004). 부모의 성격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제1호, pp. 101-116.
- 이상민(1999).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차: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1권 제1호, pp. 131-151.
- 이순자·오숙현(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와 공감능력과의

- 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제6권 제2호, pp. 333-353.
- 장미선 · 문혁준 (2004). 유아의 공감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의학회지, 제42권 제9호, pp. 53-66.
- 정은균(2007).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5요인 성격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3호, pp. 79-110.
- 허미화(1997). 아동의 공감력 발달과 권유적 훈육 방식에 대한 고찰. 초등교육연구, 제11권, pp. 51-69.
- 홍경자(2007). 자기주장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Asendorpf, J. B., & Wilpers, S.(1998). Personality effects on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4, pp. 1531-1544.
- Bandura, A.(1999). Moral disengagement in perpetration of inhuman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3, pp. 193-209.
- Batson, C. D., Fultz, J., and Schoenrode, P. A.(1987). Distress and empathy: Two qualitatively distinct vicarious emotions with different motivational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Vol. 55, pp. 19-39.
- Bentler, P. M., & Chou, C. (1998).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In J. S. Long (Ed.), *Common problems/proper solutions: Avoiding error in quantitative research* (pp. 161-192). Newbury Park,
- Blair, R. J. R.(2005). Responding to the emotions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 14, pp. 698-718.
- Blair, R. J. R.(2008). Fine cuts of empathy and the amygdala: Dissociable deficits in psychopathy and aut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Vol. 61, pp. 157-17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yne, B. (1989). *A primer of LISREL: Basic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models*. New York: Springer-Verlag.
- Bruch, M. A., Berko, E. H., & Haase, R. F. (1998). Shyness, masculine ideology,

-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motional inexpressiveness: Testing a mediational model of men's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5, pp. 84-97.
- Burkard, A. W. and Knox, S.(2004). Effect of therapist color-blindness on empathy and attribution in cross-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1, pp. 387-397.
- Carver, C. S., and Scheier, M. F (2005). 성격심리학: 성격에 대한 관점들 *Perspectives on personality*. (김교현, 심미영 및 원두리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에 출판)
- Cohen, D., and Strayer, J.(1996).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2, pp. 988-998.
- Cole, D. A., and Maxwell, S. E.(2003). Testing mediational models with longitudinal data questions and tips in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2, pp. 558-577.
- Costa, P. T., Jr, and McCrae, R. R.(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pp. 81-90.
- Costa, P. T., Jr., and McCrae, R. R.(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McCrae, R. R., and Dye, D. A.(1991). Factor scales for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A review of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2, pp. 887-898.
- Davis, M. H.(1994). *Empathy*. Madison, WI: Brown and Benchmark.
- Davis, M.(1996).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O: Westview Press.
- DeKosky, S. T., Heilman, K. M., Bowers, D., and Valenshtein, E.(1980). Recognition and discrimination of emotional faces and pictures. *Brain and Language*, Vol. 9, pp. 206-214.
- del Barrio, V., Aluja, A., and Garcia, L. F.(2004).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in a sample of spanish adolesc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32, pp. 677-682.
- Dziobek I, Rogers, K., Fleck, S., Bahnemann, M., Heekeren, H. R., Wolf, O. T., and Convit, A (2008). Dissociation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in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using the Multifaceted Empathy Test(MET). *Journal of Autism Development Disorder*, Vol. 38, pp. 474-473.
- Eisenberg, N., and Miller, P. A.(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1, pp. 91-119.
- Eisenberg, N., and Miller, P. A.(1987). Empathy, sympathy, and altruism: Empirical and conceptual links. In N. Eisenberg, and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292-31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Miller, P. A., Shell, R., McNalley, S., and Shea, C.(1991). Pr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pp. 849-857.
- Eslinger, P. J.(1998). Neurological and neuropsychological bases of empathy: Review. *European Journal of Neurology*, Vol. 39, pp. 193-199.
- Fabl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weig, J., Speer, A. L., and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0, pp. 44-55.
- Feshbach, N. D.(1982).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Social Behavior in Children,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 315-338). New York: Academic Press.
- Feshbach, N. D.(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maladjustment. In N. Eisenberg and J. Strs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lese, V., and Goldman, A.(1999). Mirror neurons and the simulation theory of mind-read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2, pp. 493-501.
- Garber, J., Robinson, N., and Valentiner, D.(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2, pp. 12-33.

- Gerbing, D. W., and Anderson, J. C.(1988).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1, pp. 132-160.
- Gini, G., Albiero, P., Benelli, B., and Altoe, G. (2007). Does empathy predict adolescents' bullying and defending behavior? *Aggressin Behavior*, Vol. 44, pp. 467-476.
- Hashimoto, H., and Shiomi, K.(2002). The structure of empathy in Japanese adolescents: Construction and examination of an empathy sca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30, pp. 593-602.
- Hoffman, M. L.(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1, pp. 607-622.
- Hoffman, M. L.(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judgment*. In N. Eisenberg and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Stra47-80).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er, J. E., and Gerbing, D. W.(1982). Unidimensional measurement, second order factor analysis, and causal model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4, pp. 267-320.
- Jolliffe, D., and Farrington, D. P.(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Vol. 29, pp. 589-611.
- Jöreskog, K. G., and Sörbom, D.(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 Kampfe, N., Penzhorn, J., Schikora, J., Dunzl, J., and Schneidenbach, J.(2009). Empathy and social desirability: A comparison of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participants using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Psychology, Crime & Law*, Vol. 15, pp. 1-17.
- Keyes, C. L. M, Shmotkin, D., and Ryff, C. D.(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pp. 1007-1022.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ee, C., Jamieson, L. F., and Earley, P. C.(1996). Beliefs and fears and type A behavior: Implications for academic performance and psychiatric health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7, pp. 151-177.
- Lopez, N. L., Bonenberger, J. L., and Schneider, H. G.(2001). Parental disciplinary history, current levels of empathy, and moral reasoning in young adult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3, pp. 193-204.
- Marshall, W. L., Hudson, S. M., Jones, R., and Ferandez, Y. M.(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15, pp. 99-113.
- Marshall, W. L., Marshall, L. E., Serran, G. A., and O'Brien, M. D.(2009). Self-esteem, shame, cognitive distortions and empathy in sexual offenders: Their integration and treatment implications. *Psychology, Crime & Law*, Vol. 15, pp. 217-234..
- Mehrabian, A.(1997). Relations among personality scales of aggression, violence, and empathy: Validation evidence bearing on the risk of eruptive violence scale. *Aggression Behavior*, Vol. 23, pp. 533-445.
- Mehrabian, A., and Epstein, N.(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Vol. 40, pp. 525-543.
- Munro, D., Bore, M., and Powis, D.(2005). Personality factors in professional ethical behavior: Studies of empathy and narcissism.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Vol. 57, pp. 49-60.
- Murray, B.(1996). Getting by with a little help from some friends. *APA Monitor*, Vol. 41.
- Noar, S. M.(2003). The rol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scale develop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10, pp. 622-647.
- Preacher, K. J., and Hayes, A. F.(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Vol. 36, pp. 717-731.
- Peabody, D., and Goldberg, L. R.(1989). Some determinants of factor structures from personality-trait descrip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pp. 552-567.

- Premack, D., and Woodruff, G.(1978). Chimpanzee problem-solving: A test for comprehension. *Science*, *Vol. 202*, pp. 532-535.
- Preston, S. D., and de Waal, F. B.,(2002).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ior brain Science*, *Vol. 25*, pp. 1-20.
- Realo, A.,. Luik, M.(2002).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empathy in the context of personality traits. *Trames*, *Vol. 6*, pp. 218-233.
- Russell, D. W., Kahn, H.,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5*, pp. 18-29.
- Schaefer, E. S.(1959). A Circum 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pp. 226-235.
- Shamay-Tsoory, S. G., Aharon-Peretz, J., and Perry, D.(2009). Two systems for empathy: A double di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in inferior frontal gyrus versus ventromedial prefrontal lesions. *Brain*, *Vol. 132*, pp. 617-627.
- Shamay-Tsoory, S. G., Tomer, R., Goldsher, D., Berger, B. D., and Aharon-Peretz, J.(2004). Impairment in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n patients with brain lesions: Anatomical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Vol. 26*, pp. 1113-1127.
-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Vol. 56*, pp. 3-21.
- Staub, E.(1987). Commentary on part I.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103-11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yer, J. and Eisenberg, N.(1987). Empathy Viewed in Context, In N. Eisenberg and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89-39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emblay, R., Pihl, R. O., Vitaro, F., and Dobkin, P. L.(1994). Predicting early onset of male antisocial behavior from preschool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51, pp. 732-739.

Waston, D., Clark, L. A., McIntyre, C. W., and Hamaker, S.(1992).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a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3*, pp. 1011-1025.

Zhou, Q., Eisenberg, N., Losoya, S. H., Fabes, R. A., Reiser, M., Guthrie, I. K., Murphy, B. C., Cumberland, A. J., and Shepard, S. A.(2002). The relations of parental warmth and positive expressiveness to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Vol. 73*, pp. 893-915.

ABSTRACT

Affectionate and Self-Regulating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s' Abilities to Empathize : The Mediating Role of the Big-Five Personality

Kang, Jeong-Hui* · Lee, Eun-Hee*

This study examined as to whether adolescents' personalities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parents'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s' abilities to empathize.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66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t four middle schools in Changwon, Masan, Kimhae and Jinhae, Kyungsangnamdo. The father's affectionate and self-regulating parenting behavior had an influence on adolescents' cognitive empathy ability. The mother's affectionate and self-regulating parenting behavior had an influence on adolescents'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ability. Extraversion, Agreeableness and Openness of adolescents' personality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affectionate and self-regulating parenting behavior of parents and the ability to empathize of the adolescents examined. In sum, this study confirm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whereby the affectionate and self-regulating nursing behavior of parents promotes the development of certain personality traits (Extraversion, Agreeableness, Openness), and this personality trait tends to raise empathy levels.

Key Words :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self-regulating parenting behavior, personality,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투고일 : 6월 15일, 심사일 : 9월 22일, 심사완료일 : 10월 1일

* Kyungnam University

부록 1. 한글판 Basic Empathy Scale 척도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측 정 문 항	문항- 전체 상관	평균	표준 편차
1. 내 친구의 감정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역)	.31	3.55	.85
2. 무슨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후에, 나는 보통 슬퍼진다.*	.42	3.17	.88
3. 나는 내 친구가 어떤 일을 잘 해낼 때, 내 친구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다.	.38	3.57	.80
4. 아주 무서운 영화 속의 등장인물을 볼 때, 나는 무서워진다.*	.23	3.60	1.18
5.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쉽게 빠져든다.*	.45	3.31	.94
6. 나는 내 친구들이 언제 무서워하는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역)	.25	3.28	.97
7.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역)	.44	3.57	.95
8.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역)	.51	3.87	.84
9. 누군가 우울하다고 느낄 때, 나는 보통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43	3.44	.85
10. 나는 보통 내 친구들이 언제 무서워하는지 알 수 있다.	.32	3.15	.88
11. TV나 영화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 나는 자주 슬퍼진다.*	.39	3.60	1.06
12. 나는 사람들이 현재의 기분이 어떠한 지를 나에게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기분을 자주 알 수 있다.*	.37	3.26	.84
13.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보아도, 나는 감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역)	.36	3.52	.87
14. 나는 보통 사람들이 언제 유쾌한지 알 수 있다.	.35	3.38	.86
15. 두려워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는 무서워지는 편이다.	.22	2.88	.99
16. 나는 친구가 화가 나 있는 경우를 보면 보통 재빨리 알아챌 수 있다.*	.44	3.69	.94
17. 나는 자주 내 친구의 감정 속으로 휩쓸린다.*	.28	2.86	.90
18. 불행에 처한 친구의 상황은 나의 감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역)	.43	3.55	.87
19. 나는 보통 내 친구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역)	.44	3.59	.84
20. 나는 친구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때를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역)	.40	3.67	.83

주. N = 460~466; 역 = 역코딩 문항; 인지적 공감 = 3, 6, 9, 10, 12, 14, 16, 19, 20, 정서적 공감 = 1, 2, 4, 5, 7, 8, 11, 13, 15, 17, 18;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문항들

